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1
River & Culture



김철호 | 원주문화재순례회장
(pco0519@daum.net)

원주천의 역사와 문화

들어가는 말

마중기 시인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든다’고 했다. 또한 ‘물길은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고 했다. 물길은 기원전부터 오늘날까지 말없이 흐르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역사성을 가지고 인간

이 패악할 때는 무자비할 정도로 무서운 응징을 한다. 하지만 원주는 물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았기에 물의 큰 응징을 받지 않고 좋은 터전을 잘 보존해 주었다.

원주천은 치악산 향로봉과 남대봉의 정상 웅담샘에서 발원하여 영원산성을 동무 삼아 금대천의 물줄기가 되어 원주시가지를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관통하여 흐르며, 흥양천·



단계천·영랑천 등과 합치면서 사방의 구릉지를 침식하여 원주분지를 형성하고 호저면 옥산리에 이르러 섬강에 흘러든다. 섬강은 태기산에서 발원하여 원주시의 북쪽으로 유입되어 굽어져 흐르다가 남서쪽으로 흘러 부론면 흥호리 부근에서 남한강의 품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남한강은 삼도의 물줄기를 품에 안고 여주 이포나루를 지나 마포강까지 퍼져 나가 고려조에서는 12조창 중 하나인 '흥원창'을 두어 수납한 세곡을 일정한 시기에 국가의 선박으로 강물을 따라 중앙의 경창(京倉)으로 이송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신라 때는 오소경(五小京) 중 북원경(北原京)을 두고 있었고, 후삼국시대에는 남한강을 터전 삼아 문막(文幕)강을 사이에 두고 궁예(弓裔)와 견훤(甄萱)이 각축을 벌이며 왕건(王建)이 올랐다가 '기린산(麒麟山)'이 '건등산(建登山)'이 되었고 견훤이 왕건과 대치하던 산성을 '견훤산성'이라 불리고 있다.

또한 남한강(南漢江)을 두고 각축을 하다가 왕건에게 나라를 세우도록 문막강이 허락하여 고려의 배태지(胚胎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한강 줄기와 함께한 부론·문막의 터에서는 인열왕후·인목대비·공빈김씨·순헌황후가 태어나기도 했다.

1.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국보 제59호)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는 사역동편의 산사면에 형성된 탑비전지(塔碑殿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품(品)자형의 건물지 3동이 배치되어 있고 외곽으로는 정다짐된 석축이 에워싸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높이 2.3m의 석축이 마련되어

있다. 품자형 건물지의 안쪽 동편에는 현묘탑비, 맞은편에는 우리나라 부도 중에서 걸작으로 꼽히는 것으로, 지광국사의 사리를 모신 현묘탑(국보 제101호)이 함께 조성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탑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에 의해 수탈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반환되어 현재 경복궁에 있으며 비의 앞면은 지광국사가 수도한 내력을 적고 있다.

지광국사 해린(海麟, 984-1070)은 속성이 원주원씨(元氏)로 원주의 토착세력 출신인 부친 휴(休)와 모친 이씨(李氏) 사이에 태어났다. 법고사 관웅대사 밑에서 수학하고 관웅대사를 따라 개경에 들어가 준광에게 출가하였으며, 16세 때 용흥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1004년(목종7) 21세에 승과에 합격한 이후 법상종 승려로서 대덕(大德)이 되었다. 고려 초 현종은 현황사를 창건하고 대대적으로 법상종 교단을 지원하였는데, 해린은 71세인 1054년(문종8) 개경에 있는 현화사 주지를 맡아 경전을 판각하였다. 그는 삼중대사·승통·왕사의 칭호를 받았고, 74세 때인 1057년(문종11) 봉은사에서 국사(國師)로 추대되었으며, 1070년(고려 문종24) 이 절에서 돌아가셨다. 뒷면에는 1,370여 명에 이르는 국사의 제자 이름 및 인원수를 적었다. 비석을 세운 연대는 1085년(고려 선종2)으로 기록되어 있다.

양식은 기단 사방에 각형 초석이 배열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탑비는 보호전각 속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탑비의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는 화강암질의 석재로 가공되었고 비신(碑身)은 점판암질로 사용되었다. 귀부는 정방형의 지대석 위에 놓였고 머리는 목을 세우고 전면을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힘차게 내딛고 왼발은 바닥을 들고 있어 앞으로 나아가려는 생동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목에는 턱에서 목으로 이어주는 수염을 안정감 있게 표현하고 있으며, 두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있다. 등에는 방곽의 귀갑문이 가득 조각되었고 내면에는 왕(王)자를 장식하였다. 비좌(碑座)는 장방형으로 비신 흠을 판 다음 외곽에 복연(伏蓮)을 조각하였으며, 비신 하단에 장부를 내어 맞추어 세운 석비이다. 비신의 상면과 외각에는 당초문이 장식되었고, 비문 상면에는 보리수나무를 중앙으로 하여 좌우 대칭의 비천상(飛天象)

과 삼족오(三足鳥), 토끼 등을 조각하였다. 또한 상면 중앙에는 전서체로 증시지광국사현묘지탑비명(贈諡智光國師玄妙之塔碑銘)이 쓰여 있고, 양측면에는 두 마리 용이 농주(弄珠)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수(螭首)는 상륜을 갖추고 위로 펼쳐진 모습에 네 모퉁이의 전각(轉角)이 우뚝 솟고 귀꽃을 사이사이에 장식했다.

이 탑비는 11세기(1085년, 고려 선종2), 고려시대 지광국사(智光國師)의 행적이 기록된 탑비로 비문은 11세기 석비(石碑)를 대표하는 걸작품으로서 비석의 재질은 연한 청색의 점판암이다. 글은 고려 초의 문장가인 정유산(鄭惟産)이 짓고, 글씨는 안민후(安民厚)가 구양순체로 썼다.

2. 거둔사지 원공국사 승묘탑비(보물 제78호)



원주에서 천년 사찰 중 가장 먼저 발굴된 곳이 거둔사지다. 원공국사 휘(諱)는 지종이고, 자(字)는 신칙(神則), 속성(俗性)은 이씨(李氏)이다. 전주사람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행순(行順)이고 어머니는 김씨(金氏)였다. 그는 8세에 사나사(舍那寺)에 거처하고 있던 인도승(印度僧) 흥범

삼장(弘梵三藏) 문하에 들어가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광종이 왕위에 올라 법문(法門)을 숭상하여 승과(僧科)를 설치하자, 이에 합격하였다. 955년(광종6)에 오월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970년(광종21년)에 귀국을 하자, 광종은 그를 우대하여 금강선원(金剛禪院)에서 거처하게 하였다. 이후 1013년(현종4)에 왕사(王師)의 자리에 추대되었으며, 3년이 넘지 않아 보화(寶華)라는 호를 제수 받았다. 1018년(현종9) 여름에 원주 현계산(玄溪山) 거둔사에서 입적하였는데 그 해 나이 89세, 법랍(法臘)이 72년이였다. 현종은 이를 깊이 애도하여 지종을 국사로 추증하고 시호를 원공, 탑명을 승묘라

고 하였다.

부론면 정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거둔사지에는 여러 문화재들이 남겨져 있다. 높이 1미터가 넘는 전후 5칸에 좌우 3칸의 금당대(金堂臺)와 주초석 15개, 돌래가 네 아름이 되는 석조 좌불대, 보물750호인 거둔사 삼층석탑, 높이 3m가 넘는 100여 미터의 석축, 천년의 위용을 자랑하는 느티나무, 한쪽 구석에 모아 둔 석재들이 오래된 사찰을 웅변해 주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신라 양식으로 보이나, 세부적인 수법과 모습은 고려시대의 양식을 따랐다. 비신은 대리석이며 이수는 비신의 크기에 비하여 큰 편이어서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석비는 두벌대의 지대석 위에 올려져 있는데 귀부 위에 방형 좌대를 설치하고 흙을 파낸 다음 비신 끝에 석방부를 만들어 세웠다. 귀부(龜趺)는 용의 머리모양을 하고 있으며, 등의 바탕에는 거북등무늬의 육각형에 만(卍)자와 연꽃무늬를 교대로 암각되어 있다. 이수(螭首)는 구름 위에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새겨 있고 비석의 위와 아래에는 인동무늬와 당초무늬가 있다.

이 탑비는 원공국사 지종(智宗, 930~1018)의 생애와 행적, 그의 덕을 기리는 송덕문이 담겨져 있다. 이 비석의 글은 당시 고려의 대학자 최충(崔冲)이 지었고, 글씨는 구양순체로 김거웅(金巨雄)이 썼는데, 이는 고려시대의 여러 비에 새긴 글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원래 거둔사지 원공국사 승묘탑(居頓寺址 圓空國師勝妙塔 보물 제190호)은 절터 뒤편에 있었으나 현재는 경복궁 내에 있고 현장에 있는 탑은 모조품이다. 탑비의 귀부는 화강암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용의 머리형을 하고 있으며, 양쪽 귀 뒤가 물고기 지느러미 같이 되어 있다. 거북모양 육각형의 귀갑문(龜甲文) 안에는 만(卍)자와 연꽃무늬가 교대로 장식되어 있으며 비좌 뒤편 등 위에 왕(王)자가 좌우로 새겨져 있다. 비문의 서체는 해서체인데 중국 구양순의 서법을 이어 받은 것이다. 이수(螭首)는 구름 위의 용이 불꽃에 쌓인 보주(寶珠)를 다투는 모습을 화려하게 조각하여 고려시대 전기 조각예술의 빼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3. 흥법사지 진공국사 귀부 및 이수(보물 제463호)



진공대사의 법휘는 충담(忠湛)이고 속성은 김씨(金氏)로 869년(경문왕9)에 태어났다. 충담은 장순선사(長純禪師)에게 사사(師事)하고 21세 때인 889년(진성여왕3)에 무주(武州) 영신사(靈神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그 후 당나라에 가서 정원대사(淨圓大師)에게서 수도하고 효공왕 때 귀국하여 왕사(王師)가 되었으며, 고려 건국 후에도 태조 왕건의 왕사가 되었다가 940년(태조23) 72세에 입적하였다. 흥법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사세(寺勢)를 크게 융성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사 입적 후 왕건이 직접 탑비문을 친필한 사실만을 보더라도 고려 초 흥법사지의 사격(寺格)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귀부는 지대석과 일석(一石)으로 용두화(龍頭化)된 머리는 전면을 향하고 목은 짧으며, 입에는 여의주(如意珠)를 물고 있다. 등에는 육각형의 귀갑문이 가득 차 있고 귀갑문 내면에는 화문(花紋)과 만(卍)자를 조각하였다. 비좌는 장방형으로 측면에 안상(眼象)이 조각되어 있으며, 상면에는 이수가 얹혀 있다.

이수는 정면 제액(題額)에 종방향의 전서체로 '진공대사'라고 새겨져 있다. 제액 좌우에는 대칭으로 운용(雲龍)을 배치하였고 이수 네 모서리에는 4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다. 비신은 중앙부를 제외한 상부와 하부 4쪽만 남아 있다.

비문은 친히 왕건이 글을 짓고 고려 초의 문신인 최광윤(崔光胤)에 명하여 당태종의 행서체로 집자하여 새기도록 하였다. 비문의 뒷면에는 대사가 태조에게 올린 표(表)가 해

서체로 새겨져 있다. 전체적으로 흐르는 서풍(書風)은 역시 당태종이 좋아하는 왕희지의 서풍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흥법사지 삼층석탑(보물 제464호)



이 절의 창건을 비롯한 역사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현장을 가보면 탑과 귀부 및 이수가 그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을 뿐이다.

흥법사지 삼층석탑은 2층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쌓은 전형적인 일반형 석탑이다. 지대석 위에는 하대석과 그 위의 면석을 한 돌로 만들어 4석(石)으로 구성된 하층기단이 있다. 이 기단의 각 면에는 우주나 탕주의 모각 없이 각 면에 3구씩 안상(眼象)을 새겼고, 안상 안에는 땅으로부터 솟아난 꽃모양의 조각이 있다. 이는 고려시대 석탑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그 위에 놓인 2매로 된 갑석(甲石)은 폭이 좁은 편이고 상면에는 심한 경사가 있어 특이하며, 중앙에는 삼층기단을 받치기 위한 얇은 1단의 꺾이 있어 약화(略化)의 과정을 밟고 있다. 상층기단 면석은 여러 장의 판석을 이용하여 불규칙하게 구성하였는데, 규모는 특히 장대하며 우주와 탕주의 폭은 아주 좁아진다. 2매로 덮은 상층기단 갑석의 하면에는 부연이 없고 상면에는 경사가 있으며, 중앙에 각형 3단의 받침이 있음도 특이하다. 탑신부는 기단에 비하여 급격히 작아져서 비례가 맞지 않는다.

너비는 반으로 줄어들었고 높이는 약 3분의 2로 줄어들었으며, 초층 옥신에 비하여 2층 이상의 옥신 높이 또한 2분의 1로 줄어들었다. 각층 옥신에는 가느다란 우주형을 모각하였

고 초층 옥신 한 면에만 문짚과 자물쇠가 새겨져 있을 뿐 다른 조각은 없다.

옥개석의 추녀 부분은 손상이 많은 편이며, 아래면의 받침은 각 층 4단이고, 얇은 받침에 비하여 낙수면이 두꺼워서 경사가 심하고 추녀 밑은 전각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反轉)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고려시대 탑의 일반적인 양식이다.

옥개석의 정상에는 옥신석을 받치기 위한 1단의 각형(角形) 꺾이 있다. 상륜부에는 손상이 많은 노반(露盤)과 함께 우뚝 솟은 보주(寶柱)가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석탑은 규모가 작고 기단부와 탑신부의 비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표면 조각도 형식에 치우쳐 있어 건립연대 자체를 고려 초기를 훨씬 지난 시기로 보고 있다. 흥법사지의 터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에 있다. 특히 안창은 한양에서 원주로 들어오는 원주목사 및 강원도 관찰사가 부임할 때 유일한 도로로 이용하였으며,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로 과거에는 원주로 들어오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때문에 안창역말도 흥법사지 입구에 있었다.

5. 치악산과 영원산성(국가사적 제447호)



영원산성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궁예가 치악산 석남사를 근거로 여러 고을을 공략하였을 때 이용하였을 것으로 전해지며 신라 문무왕 때 축조되었다고 한다. 고려 충렬왕 17년에 원나라의 합단적이 침입하였을 때 원주사람인 항공진사 원충갑이 원주 백성들과 함께 이 산성에서 적들을 크게 물리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영원산성

대첩제를 거행하고 있다.

또한 조선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에는 김제감 원주목사가 주민을 이끌고 들어가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한 곳으로 임진왜란 당시 치열한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때 김제감 원주목사와 그의 부인 전주이씨 아들 김시백이 함께 순절하여 충충 효효 열렬이 꽃피운 것이기도 하다.

6. 윤곡 원천석 선생(강원도기념물 제75호)



흥망이 우수하니
만월대도 추초(秋草)로다.
오백년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가는 손이
눈물겨워 하노라.

이 시조는 고려조를 생각하는 윤곡 원천석(耘谷 元天錫) 선생의 유명한 시조다. 원천석은 1330년에 윤적(允迪)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여 자를 자정(子正), 호를 윤곡(耘谷)이라 하였고, 본관은 원주이다.

일찍이 국자진사(國子進士)에 합격하였으나 고려 말에 국정이 문란해지자 고향인 원주 치악산에 들어와 손수 밭을 갈며 어버이를 봉양하면서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 한편 이색(李穡)과 교류하면서 세상일을 개탄하였다.

운곡 선생은 일찍이 이방원(李芳遠; 조선조 3대왕인 태종)을 소년시절에 글을 가르쳤다. 이방원이 왕이 된 후에 스승인 운곡을 수차례 조정에서 출사하기를 권하였으나 끝내 응하지 않고 치악산 속에서 숨어 살면서 30여년 동안 절의를 지키며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생활하였다. 그 후 선생은 위대 한 스승으로 후세인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사액서원인 칠봉서원에 배향되었다.

저술로는 회고가(懷古歌)와 운곡시사(耘谷詩史)가 전해진다. 그리고 화해사전(華海師全) 6권을 저술하였으나 국사(國史)와 저축된다 하여 후손들이 소각하였다고 한다. 선생의 묘소는 무학대사가 정해진 봉호열(鋒腰穴)에 있으며, 꾸밈없이 소박하고 청초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 청고하게 살다간 선생의 선비정신을 후세에 전하였다. 특히 태종과 운곡의 전설이 치악산 곳곳에 서려 있다.

7. 조엄(강원도기념물 제76호)



조엄(1719~1777)의 자(字)는 명서(明瑞), 호는 영호, 본관은 풍양(豐壤)이며, 사은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조상경(趙尙綱, 1681~1746)의 아들로 서울 쌍리동(雙里洞, 옥수동)에서 태어났다. 1738년 무오생원시(戊午生員試)에 합격하고, 1752년 정시문과(廷試文科)의 을과(乙科)를 거쳐 1753년 정언(正言)이 되었고, 이조판서·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동래부사와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쌓은 일본에 대한 여러 경력을 바탕으로 1763년 통신사로서 대일 외교의 중책을 담당하였다. 그가 일본으로 건너가던 때는 마침 가을

이었다. 지금은 뱃길로도 일곱 시간이면 건너는 현해탄이지만 풍선(風船)을 타던 당시에는 바람결 따라 며칠도 걸릴 수 있는 험한 뱃길이었다. 현해탄을 건너던 중 통신사 일행은 대마도 즉, 쓰시마에 들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조공은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곡식을 본 것이다.

일본인들이 밭고랑의 냇물을 헤치며 땅을 파내는 냇물에는 과일 같은 곡식이 주렁주렁 달려 있지 않은가? 처음 고구마를 구경한 조공은 희한하여서 “저것은 마치 땅속에서 열리는 과일 같은 곡식이구나.”라며 혼잣말을 하였다.

지금도 고구마를 지과(地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 때 조공이 느낀 데서 연유하였고 사실 조공 자신도 이것을 가져다가 퍼트리면서 곡식이름을 지과라 했다.

조공은 대마도 번주가 자기를 대접하는 객관에서 “낮에 처음 본 지과 같은 곡식을 먹어볼 수 없겠느냐?”고 청했다. 조공의 청에 의해 일본인들은 고구마를 찌다 바쳤는데 처음 맛본 조공은 그 맛이 좋다 생각하고 생(生)으로 된 고구마의 맛을 느끼고자 했다. 그래서 다시 생고구마를 청했더니, 일본인들은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며 생고구마는 맛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다. 일본인들의 태도로 미루어서 그들이 고구마 종자를 외국인에게 주지 않으려는 뜻이라고 눈치 챈 조공은 그날 밤으로 부하에게 금붙이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접근해서 종자 몇 알만 얻어오라 당부했다.

이렇게 해서 남모르게 종자 세 알을 구한 그는 다음날 시치미를 떼고 대마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듬해 봄을 기다려 다시 대마도에 들렀다. 길으로는 일본에 들어가 사신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르는 일이라 해서 대마도 번주도 의심하지 않고 그를 환대하였는데 여기서 며칠 묵는 동안 또다시 부하를 시켜서 고구마 심는 법과 가꾸는 법을 세밀하게 배우게 했다. 이렇게 해서 신주 모시듯 가져온 고구마 세 알을 동래와 제주도에서 정성들여 가꾼 보람이 있어 몇 해 후에는 각 도에 종자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고 퍼져 나간 종자가 전국에 보급되어 식량사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조공은 그 후 공조판서, 동지성균관사, 지의금부사, 이조판

서를 거쳐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무고로 관직에서 파면되었다. 그 후 혐의가 풀려 다시 대사간과 이조 판서를 지냈으나 1777년 정조(正祖) 1년에 홍국영(洪國榮) 일파의 무고로 또 다시 위원에 유배되는 몸이 되었다. 유배되어 처형을 기다리던 중 그의 아들 진관의 직소가 주효해서 죽음은 면했으나 다시 김해(金海)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병사했다.

그는 산업과 재정에 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문장도 뛰어나서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문장으로 또는 식건으로 도꾸가와(徳川) 막부의 요인들을 글로서 굴복시켰다는데 이러한 그의 글재주를 자손들도 닮은 탓인지 그의 후손들은 7대를 내려 올 때까지 판서를 지냈다고 하며, 그래서 그의 문중이 살던 동네 이름을 지금도 '작동'이라 한다.

'작'이란 벼슬작자의 '爵'자인데 이것도 아마 조공과 그의 자손을 경모하여 부쳐진 이름 같다. 지금 지정면 사적비에는 그가 통신사로 일본에 건너갈 때 풍랑으로 고생하던 일까지 낱낱이 적혀있다. 우리 고장 원주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구마 이야기는 전설이 아닌 당시 실화이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의 묘소에 있던 양석(洋石)을 1997년 12월에 도굴꾼들이 몰래 훔쳐가 버려 안타까운 마음 금(禁)할 길 없다.

8. 원충갑 장군(강원도문화재자료 제138호)



원충갑(元沖甲) 장군은 고려 때 사람으로 고종 37년(1250년) 원주에서 태어나 충숙왕 8년(1321년)에 별세했다. 장군의 본관이 원주이고,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고려의 정란공신(定亂功臣)으로 고려사 열전에 이렇게 적혀 있다.

“원충갑은 원주 사람이며, 체구가 짝달막하되 용감하고 눈동자가 빛났다”고 한다. 향공진사(鄉貢進士)로 원주의 별초(別抄)에 소속 되었으며, 충렬왕 때 합단(哈丹)의 침략군이 함경도 철령을 넘어 침입하자 여러 고을에서 모두 도망하고 대항하는 자가 없는 상황에 적이 영원산성을 함락하고자 원주에 주둔하였는데, 원충갑 장군이 전후 10회의 전투로 적들을 크게 격파하여 도라도 등 68명을 베어 죽이고 사살자도 거의 절반이 되었다. 이로부터 적의 예봉이 꺾이어서 감히 공략하지 못하여 여러 성이 지켜지므로, 비로소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으니 이것이 모두 원충갑 장군의 힘이었다. 이 공로로 여러 번 옮겨 삼사우윤(三司右尹)이 되었다. 충선왕 때에 응양상호군(鷹揚上護軍)에 임명되고, 충숙왕 6년에 추성분용정란광국공신(推誠奮勇定亂匡國功臣)의 칭호를 받았다. 2년 뒤에 생을 마치니 나이 72세였다. 이때가 임금이 강하도로 피난을 할 때였다. 이 때 쳐들어왔던 합단의 무리는 글안(契丹)의 후신인 원나라 태조의 아우 ‘합적온’의 자손으로서 원의 세조에 반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고려에 침입 1291년에는 강원도를 거쳐 충청도로 내려갔다가 공주강(금강)에서 고려군과 원나라 연합군을 만나 대패했다. 그는 굴하지 않고 두 달 후에 바다로 건너갔던 것이나 결국 패하여 자살하고 말았다.

합단의 무리가 원주로 향한 것을 안 원충갑은 영원산성과 금두산성, 해미산성들을 급히 수축하고 원주 수호에 전력을 다 한 결과 적은 이 성들을 빼앗지 못한 채로, 충청도에 내려갔으며 원충갑으로부터는 항상 배후의 위협을 받았었다.

충렬왕 29년에는 왕의 특명으로 간신 오기와 홍자변을 잡아서 원나라에 압송한 일도 있었다. 옛 시인들도 다투어 장군을 예찬하였다. 고려 말 조선초의 시인 조준(趙遵)과 정필(鄭弼)의 찬양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철령의 오랑캐 말이 바람처럼 달리는데/ 이름 없는 젊은이가 한 칼로 공을 높였네./ 나라에 바친 외로운 충성은 해를 꿰뚫고/ 몸을 잊은 대의(大義)는 만리장성 같았네.

- 조준

지축(地軸)을 흔드는 성난 호랑이/ 북원(北原)에서 막아

만민을 살리었네./ 공적(功績)은 삼분(三分)된 나라에 으뜸
이고/ 장한 기운은 백전(百戰)의 성(城)에 서렸네.

- 정필

원주문화원에서는 원종갑 장군의 애국애민정신을 기리
기 위하여 영원산성에서 1996년 3월 10일(음력 1월 21일) 승
전 705주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로 '영원산성대첩제'를 치루
었다. 이 분의 묘소는 지정면 간현역에서 간현관광지 쪽으로
가다가 100미터에서 우회전해 약 1킬로미터 가면 원주이씨
사당 왼쪽 동산에 모셔져 있다.

9. 의병장 이은찬



아래 시는 원주 태생의 의병대장 이은찬공이 마지막 길에
남긴 사세시(辭世詩)로서 그 뜻을 풀이 하면,

‘오랏나무 한 가지로 배를 만들어 만백성 건지고서 바다에
뗏다가 품은 뜻 못 이루고 내 몸이 먼저 빠지니 뉘라서 동양
의 평화를 보존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 시에서 오랏나무 한 가지라 함은 자신의 성 오랏
이(李)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枝李樹 오랏나무 한 가지로 作爲船 배를 만들어
慾濟蒼生 만백성 건지고자/ 泊海邊 바다에 뗏다가
寸公未就 품은 뜻 못 이루고/ 身先溺 내 몸이 먼저 빠지니
誰算東洋 뉘라서 동양의 평화를/ 樂萬年 보존한단 말인가
의병장 이은찬공은 종실 덕천군(德泉君)의 후예로서 고종
14년 9월 21일 이석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기골
이 장대하고 마음이 넓을 뿐더러 지략이 뛰어났던 사람이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품이었는데 그가 아우인 이은호
와 같이 원주 문막면 포진리 낚은 터에 와있을 때, 이 나라를
일본에 넘겨주는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된 것
을 보고 의병을 일으켜 서울로 쳐들어갔다.

이은찬 의병장은 신식훈련을 받은 진위대와 연합하여 군
세를 2천여 명으로 확장하고 나서, 이인영을 문경(聞慶)으로
찾아가 의병대장이 되어 달라 간청하였다. 이인영 대장이 쾌
히 승낙하자 그를 원주로 모셔온 후 자신은 중군대장이 되어
의병의 기치를 높이 세우니 인근에서 모여오는 장정이 많아
군세는 더욱 확장되었다.

또한 의병부대는 각도에 격문을 띄우니 이에 호응하여 모
여드는 의병이 1만여 명이나 되어 한때 원주 벌판이 온통 의
병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그 후 원주에서 서울과 가까운 경
기도 양주로 이동하여 13도 의병 총대장에 이인영, 중군대장
에 이은찬, 호서(湖西)지방대장에 이강년, 황해지방대장에
권익희, 관북대장 정봉준, 관동대장 민근호, 영남대장 박정
무, 관서대장 방인관, 군사장에 허위를 정하여 부서 개편을
끝내고 서울에 의병을 보내어 각국 영사관을 찾아가서 통고
문을 전달케 했다.

대병력을 24개진으로 편성하고 복상하던 이인영 의병대는
대소 38회의 전투 끝에 서울로 유박하였으나 후방부대가 도
착하지 않아 300명의 부대원으로는 1천여 명의 일본군 공격
은 중과부적이랄 수밖에 없어 의병부대는 이곳에서 전멸하
였고, 군사장 즉 참모장 허위는 잡혀서 서대문감옥에서 옥사
하고 총대장 이인영은 부친의 부음을 듣고 문경으로 돌아갔
다가 1909년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사형되었다.

이은찬 의병장도 하는 수 없이 휘하의 남은 병력 5백을 거
느리고 양주로 퇴진하여 2년 동안을 머물면서 경기도와 황
해도 각지에서 일본수비대와 싸웠다. 그의 대표적인 전투는
1908년 7월 7일의 계평리 싸움, 1909년 3월 27일의 양주북방
석우리 전투이다. 그러나 역부족인 이은찬 의병장은 후일을
기약하고 북간도에 들어가서 다시 많은 군사를 양병할 것을
계획하고 친구인 김모씨에게 그 뜻을 말했다. 말을 들은 김
모씨는 내가 충분한 군자금을 마련해주겠으니 며칠 후 용

산 역전에서 만나자고 하고 그 길로 일본 헌병에게 밀고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용산 역전에 나갔던 이은찬 의병장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그러나 문숙공 이은찬 의병대장의 처벌이 민심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 일본인 판사와타나베는 감언이설로 그의 전향을 권했다. 이 말에 대해 이은찬 의병대장은 대갈일성으로 이를 물리치고 사형을 받으니 때는 1909년 5월 10일이었고 장소는 용산에 있는 일본군 병영 안이었다.

이렇게 33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친 의병장의 유해를 이은찬 의병장의 심복부하였던 박찬문씨가 거두어 원주로 와서 원주시 봉산동 소재 현 천주교 공동묘지에 안장했다.

해방 후 정부는 문숙공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내리기로 결정했으나 이은찬 의병장의 후예가 나타나지 않아 전달을 못하다가 원주문화원(원장; 황주익)이 수소문 끝에 문숙공의 아우인 이은호씨의 둘째아들 이한주씨를 찾아내서 문숙공의 사후양자(死後養子)로 입적 시킨 후, 문숙공의 추모비 건립을 추진했다.

문숙공에 대한 건국훈장은 1969년 3월 1일 원주 공설운동장에서 박건주(朴建周) 원주시장의 손으로 전달되었고 추모비는 이보다 앞선 1968년 10월 27일 제 1군사령부의 지원과 원주지구중장비공장의 석재운반지원 등을 얻어 원주 학생동에 세워진 것이다.

10. 의제 문숙공 김제갑



선조 25년 4월 13일, 일본의 '도요도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의 20만 대군이 부산으로 상륙한 후, 파죽지세로 서울을 향해 북상하였는데 4월 27일에 벌써 그 선봉이 충주(忠州)에 이르렀다.

왜군이 이토록 신속하게 진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군세가 강하고 당시의 신무기였던 조총(鳥銃)을 사용한데도 있겠거니와 그 보다도 큰 원인은 당시 각 고을을 지켜야 했던 목사들이 적을 보기가 무섭게 도주했기 때문이었고 민심은 이미 조정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등정정(加藤清正)의 군세는 무인지경을 가듯 북상할 수 있었다. 이때 원주에 어진 목사가 있었으니 문숙공 김제갑(金梯甲) 공이었다.

문숙공은 1525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0세에 부친을 여의고 고모부와 장인에게 글을 배우며 19세에 퇴계 이황의 문하생이 되어 글 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 28세 때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를 거쳐 1581년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1591년 공조참의를 거쳤다.

조정에서는 대사간(大司諫)의 중임에 있다가 그의 아들이 조정에 벼슬하자 뜻하는 바 있어 원주 목사를 자청, 선조 24년 11월 19일 부임하였으나 부임한지 1년이 되지 않아 임진왜란이 일어나 이곳 원주땅의 영원산성에서 왜적과 싸우다 적의 조총 두 방이 문숙공을 꿰뚫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한 성중(城中)에 있던 공의 부인 이씨는 “영감 마담께서 이미 돌아가신 이 마당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 무엇하랴”하고 벼랑에서 떨어져 자결했다 하는데 혹설에는 칼을 안고 엎어져 자결했다는 말이 있다.

이 때 둘째 아들 시백이 있다가 활과 화살을 노복에게 주면서 “너는 어서 이곳을 빠져 달아나도록 해라.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나야 시신을 두고 어찌 가겠느냐”고 시신을 거두려다가 그 또한 왜장의 칼에 맞아 쓰러졌다. 이렇던 형편에 공이 거느리던 가솔 백여 명도 적과 싸우다가 한날 같은 장소에서 쓰러졌다 하는데 이날이 바로 한 많은 임진년 팔월 이십일 아침이었다. 충효절을 남긴 원주의 선비정신을 몸소 실천한 분이시다. 그리하여 1711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원주 역전의 총렬비에 아래와 같은 글을 새겼다.

‘오오, 당신은 원주의 빛이며 강원도의 의기요, 겨레의 스

승이요, 아들과 아내의 별이 오리다. 임진왜란 가등청정의 불의의 군사를 무찔러 최후의 일각까지 이 땅을 지켰고 마침내 시체를 말가죽에 싣고 그 높고 씩씩한 정신 가르다. 아들과 아내마저 호와 정을 지켰네. 왜란이 지나간 지 374년, 자주독립의 열이 불타는 강원도 도민은 이담을 세워 천만대 후손에게 빛을 전한다.며 원탄 박종화(朴鍾和) 선생이 글을 지었다.

문숙공의 충열담은 1966년 6월 29일 '애국유족부활위원회'에 의해 세워졌다.

나가는 말

선조들의 말씀 중에 '물은 제길 따라 간다'는 말씀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강물은 우리 인간에게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모든 것을 안겨 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편리하자고 심하게 물길을 돌려놓으면 그 당시는 아무 저항 없이 인간의 행태를 따라 순응하나, 언젠가는 인간에게 커다란 재앙과 함께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송두리째 삼켜 버리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잘 보고 느껴 왔다. 또한 역사의 부침도 강물

과 함께 이루어져 온 것도 부정 못할 사실인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원주천의 위상은 신라의 군사요충지가 되어 오소경(五小京)을 두어 북원경(北原京)으로 불렀고, 후삼국시대는 견훤과 왕건이 쟁패를 하여 왕건이 원주천을 터전 삼아 고려를 건국하였다.

영국은 바다를 제패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찍 회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강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꼭 중국인'이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하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부국강병을 이룩한 것이다.

원주사람들도 말없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교훈 삼아 길들여져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나 평강할 때나 큰 자연재해 없이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현대사에서도 군사독재를 무너뜨리는데 앞장 선 지학순 주교, 청강 장일순 선생, 김지하 시인, 나전철기의 장인이신 김봉룡 선생, 세계적인 문호 박경리 선생 등이 이 곳 원주에서 강을 벗 삼아 터를 잡아 생활하셨고 지금도 생활하고 계신다.

말없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교훈 삼아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

